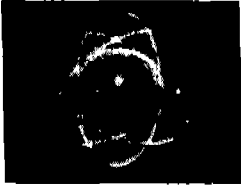


# 電力不足 解決위해 原電建設 계속 필요



韓 鍾 熙

韓國電力公社 江東支店 配電部長

얼마전 세계의 석유 보고에서 벌어졌던 걸프전쟁은 약 90%의 기초 에너지를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발달과 국민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으로 전력소비가 계속 경제 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하여 올 여름부터는 전력부족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과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발전소를 신속히 건설해 나가는 길 뿐이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구환경 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실화 문제와 산성비 등의 공기 오염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기술로서는 원

자력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사능 피해 시비와 안전도 사태 등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확보인 것이다.

현재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대부분의 산업분야 기술자들이 보는 견해로는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분야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방사능 물질의 특성과 그간의 사고 경험을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다중 안전보호장치는 물론 방사능에 대한 엄격한 안전규제 및 감시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설비보다도 안전성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반원자력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위험)하다면 누구보다도 원자력을 잘 아는 많은 기술자들이 알파한 월급봉투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러한 위험을 알면

서 일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다 할 부존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원자력 발전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면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한전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전력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일찍이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자국의 에너지 문제해결은 물론 이웃 이탈리아 등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편향된 시각으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여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